

출판인들이여, 베이비 붐 세대를 공략하라

글 서주현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저작권팀 영미권 담당

미국의 베이비붐은 2차 세계대전 승리 직후인 1946년부터 시작됐다. 1957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신생아의 비율이 2.47%에 이를 정도로 베이비붐은 강력했다. 이렇게 1946년부터 1964년에 걸쳐 태어난 미국의 약 7,800만 베이비 붐 세대(이하 '부머'로 표기)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 10명 가운데 1명은 100세까지 장수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세상.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장수 혁명은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미지의 길임이 분명하다. 퇴직, 재교육, 건강 및 재정상의 문제, 취미생활, 새로운 관계 맺기 등 자신들 앞에 놓인 수많은 숙제와 질문 앞에 선 미국의 부머들은, 그 해답을 책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출판인들이 점점 더 많이 'B'(Baby Boomer, 베이비 부머)라는 글자를 책 제목에 넣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시간 넉넉하고 주머니 두둑한 부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어느 장르 할 것 없이 미국 출판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도서들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의 부머 독자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부머의, 부머에 의한, 부머를 위한 책들

《도약하라!-부머 세대가 말한다. '우리는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Random House, 2007년2월)의 저자 사라 데이빗슨은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항상 재창조하고 재개발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 범위는 육아, 폐경기를 넘어서 이제는 인생

의 제 3막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1973년 작품으로 세 명의 60대 여성의 삶을 그린 소설 《루스 체인지》(Loose Change)의 작가 데이빗슨은 2007년 현재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마땅한 직업이 없는 56세의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러한 개인적인 위기는 200명의 유명인과 평범한 부머 모두를 인터뷰한 책, 《도약하라!》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부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간 소설 두 편도 눈길을 끈다. 팀 샌들린의 《지미 핸드릭스 80세 되다(Jimi Hendrix Turns Eighty)》(Riverhead, 2007년 1월)는 2022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병든 부머가 보조 생활 센터의 동료 퇴직자가 자신들이 한 때 향유했던 히피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며 지내는 것을 목격한다는 내용이다. 부머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보장(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살을 '장려하려는' 계획을 풍자한 크리스토퍼 버클리의 작품, 《붐스테이(Boomsday)》(Twelve, 2007년 4월)도 부머들의 흥미를 자극하리라 본다.

4월 출간 예정인 리처드 크로커의 《부머의 세기 '1946~2046'》(The Boomer Century 1946-2046) (Springboard Press)는 PBS 다큐멘터리와 공동 제작될 예정이다. 워너(Warner)의 부머 전문 임프린트, 스프링보드(Springboard)의 한 편집자는 "부머 시장은 소비 능력이나 그 수로 볼 때 방대하다. 이들은 자기계발, 건강, 기타 이슈들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며 스프링보드의 밝은 앞날을 자신하고 있다.

스프링보드는 또 올 3월에 《바비브라운의 살아있는 아름다움》(Bobbi Brown Living Beauty)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제 막 50



세를 넘긴 이 책의 저자 '바비브라운 코스메틱스' 사의 CEO는 이 책에서 마흔이 넘은 여성들의 미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월에는 워너 북스가 산제이 굽타의 저작 《삶을 추구하다(Chasing Life) - 불멸을 꿈꾸는 시대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출간한다.

그 외에도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는 《새로운 퇴직 생활을 위한 베이비부머 가이드북(Skinning the Cat: A Baby Boomer's Guide to the New Retiree Lifestyles)(Joan, Fitting Scott 저, Infinity Publishing, 2006년 12월) 같은 자기계발서와 《베이비 부머 마케팅(Marketing to Leading-Edge Baby Boomers)(Brent Green 저, Paramount Market Publishing, 2006년 3월) 등 부머들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서적 등은 이미 출판계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나이드 사람들은 더욱 많이 읽고 싶어 한다. “우리 부머들은 자신들에 대해 계속해서 탐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쓰고, 또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읽게 될 것이다”라며 마이애미에서 Books & Books 서점 체인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부머는 부머들이 중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러한 책들이 더욱 많이 출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를 위시한 국내 분위기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라는 1955~1963년생 810만 명 중 일부는 이미 50세를 지났고 퇴직하기 시작했다. 50대에 하나의 커리어를 매듭지은 후 다시 20~30년의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

는 인생 2모작은 앞으로 80세를 훨씬 넘겨 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50대들에게는 호기심을 넘어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50대의 힘》(랜덤하우스 코리아), 《경제수명 2050 시대 : 50대 20년은 일할 나이》(거름) 등 인생 2모작을 위한 자기계발서와 《50대 이후 웰빙 시대의 건강체력관리》(21세기 교육사) 등 50대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1955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베이비 붐이 1946년부터 시작된 미국과는 10년의 격차를 두고 미국의 인구구조를 답습한다. 한국의 부머들도 미국의 그들처럼 책 읽기에 심취해 지금의 미국에서처럼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부머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기대해 본다. **이규원**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자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 [bookpist (book +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자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와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중개한 책으로는 《리치우먼》(카리 페디엠)《돈의 원리》(우체부 프레드 2) 등이 있다.